



일자리 기회가 줄어들며 임금상승이 둔화되고 나아가 **경제 활력이 꺾일 것입니다.**

내년에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인 세금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위 변경 사항을 영구화한다면 수익은 여태까지의 평균보다 약간 낮게 유지되는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모든 소득 수준에서 4조 달러 이상 규모의 세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.

세수를 수년 동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의회에는 낭비, 사기 또는 해외 원조 관련 지출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(물론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합니다). 현재 연방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향후 **지출 증가의 핵심 원인**은 메디케어, 메디케이드, 사회보장입니다.

만약 유권자들이 정부의 계속된 확장을 원한다면, 의회는 유권자들에게 정부에 지불하는데 필요한 세금 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. 부유한 미국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, 소득 분배의 최상위에 있는 그들의 자원만으로는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. 그 예로, 5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**모든 달러를 몰수**하는 것 만으로는 우리에게 예상되는 적자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역시도 100% 세율이 실현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.

만약 정부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, 미국 정부는 끝내 유럽 정부의 비효율 과세 전처를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미 의회는 유럽과 같은 큰 정부 체제는 부유층과 중산층, 서민층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.

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헌법적으로 의문스러운 **부유세** 도입 주장은 후보 측의 낙관적 전망에 따르면 정부 예산 적자의 3%에 해당하는 보완적 수입을 올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

이 경우 유럽의 전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들의 세부담 역시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.

**케이토 연구소**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, 평균 임금을 받는 한 명의 근로자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주할 경우 약 \$12,000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(평균 22개의 EU 국가 기준).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광범위한 임금 세금, 급여 세금 및 상품,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.

임금소득의 높은 세 부담은 유럽인들이 더 가난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. 그 결과 그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게 되고, 더 짧은 경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며, 그 결과 사회의 혁신성은 저하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.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70퍼센트 더 적게 소비하고 있는데, 이 점은 그들이 미국인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.

만약 정부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, 미국 정부는 끝내 유럽 정부의 비효율 과세 전처를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미 의회는 유럽과 같은 큰 정부 체제는 부유층과 중산층, 서민층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.

2017년 공화당이 거의 일시적인 1조 5,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킨 이래 명목 지출은 54%가량 증가하였고, 동시에 매출은 34% 증가하였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지표가 감세가 스스로 효과를 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닙니다.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팬데믹,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 패키지 등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. 위 지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출이 세수보다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

우리는 세금을 낮게 유지해야 하지만, 지출 삭감을 포함한 진지한 지출 규율의 선행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.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저성장과 높은 세율의 늪에 빠져 유럽의 전처를 밟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. 그러나 낮고 잘 설계된 세금을 제한적이고 올바르게 목표한 지출과 연결하는 합리적인 재정 정책은 더 많은 미국인이 더 많은 비중의 순수입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.

번역: 이준혁

출처: [If Congress Doesn't Cut Spending, Americans Will Pay Higher Taxes | Cato Institute](#)